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은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을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던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 역시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는 싸움을 불리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인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이 있는데, 특히 경쟁심은 인간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 경쟁은 우리 삶에서 떼어 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쟁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친다고 비판합니다. 효율성과 적자생존의 법칙을 앞세운 경쟁 논리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도외시한 채,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쟁에 대한 오해입니다. 경쟁은 경쟁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 내는 긍정적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를 가리켜 유독 '경쟁 사회'라 부르며,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가르는 약육강식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 사람들은 흔히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쟁 구도를 설명할 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언급하고는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이고, 진화론은 이를 잘 뒷받침해 주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사실,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과학 이론도 드물다.

다윈이 주목한 지점은 생물체에 일어나는 '변이의 다양성'이었다. 다윈은 이러한 변이가 쌓여 점차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오히려 자연 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윈은 "변화는 생명체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번식 행위를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라고 썼다. 이 글 어디에서도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열등하며,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도 좋다는 뜻은 담겨 있지 않다. 다윈은 다양한 생물 종을 관찰한 뒤, 생물체를 있게 한 원동력은 환경에 적응하며 얻게 된 '다양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양한 생물 종이 아무리 제각각 다양한 자원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해도, 생물의 가짓수에 비해 자원의 가짓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자원을 놓고 여러 생물 종이 경쟁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생물 종은 서로를 내쫓기 위해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는 한다. 이러한 다양한 예를 들며 실제로 경쟁보다는 공생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 여성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는 공생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의 한 사람이다. 공생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상부상조 전략을 추구한다. 지의류는 잘 알려진 공생 생물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끼처럼 보이는 지의류는 사실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와 파래나 청각 같은 조류가 한데 어우러진 생물체다. 지의류의 공생 관계는 너무도 밀접하여 이 둘을 분리하면 단독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 지의류는 균류와 조류가 합쳐서 진화한 새로운 생물 종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이처럼 진화론은 태생부터 경쟁보다는 공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는 오래도록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다. 획일성과 경쟁, 반목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다] "천지간 생물 중에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 저 금수와 초목은 지혜나 깨달음도 없으며, 예법이나 의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금수보다 귀하고 초목이 금수보다 천한 것입니다."

실용이 고개를 찢히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너는 진실로 사람이로구나. 오륜(五倫)과 오사(五事)는 사람의 예의(禮義)이고, 때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불리 먹이는 것은 금수의 예의이며, 떨기로 나서 무성한 것은 초목의 예의이다. 사람으로서 만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하지만 만물로서 사람을 보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다. 하늘이 보면 사람이나 만물이 마찬가지로이다. (중략) 또 봉황(鳳凰)은 높이 천 길을 날고 용(龍)은 날아서 하늘에 있으며, 시초(蓍草)와 울금초(鬱金草)는 신(神)을 통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재목으로 쓰인다. 사람과 견주어 볼 때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하냐? 대개 대도(大道)를 해치는 것으로는 자랑하는 마음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만물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자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봉황이 날고 용이 난다 하지만 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초와 울금초와 소나무와 잣나무는 초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은 백성에게 혜택을 입힐 인(仁)이 없고, 세상을 다스릴 지(知)가 없으며, 복식이나 의장, 예악(禮樂)이나 병형(兵刑)도 없거늘 어찌하여 사람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까?”

“너는 너무도 미혹하구나. 물고기를 놀라게 하지 않음은 백성을 위한 용의 혜택이며, 참새를 겁나게 하지 않음은 봉황의 세상 다스림이다. 다섯 가지 채색 구름은 용의 의장이요, 온몸에 두른 문채는 봉황의 복식이며, 바람과 우레가 떨치는 것은 용의 병형이고, 높은 언덕에서 화한 울음을 우는 것은 봉황의 예악이다. 시초와 울금초는 종묘 제사에 귀하게 쓰이며, 소나무와 잣나무는 대들보로 엮을 귀중한 재목이다. 옛사람이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고 세상을 다스릴 때, 만물에 도움받지 않은 것이 없었다. 군신(君臣) 간의 의리는 벌에게서, 병진(兵陣)의 법은 개미에게서, 예절(禮節)의 제도는 박쥐에게서, 그물 치는 법은 거미에게서 각각 취해 온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인(聖人)은 만물(萬物)을 스승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느냐?”

이에 허자가 큰 깨달음을 얻더라.

[라] 사회 자본은 여러 가지 개념이 중층적으로 섞여 있는 탓에 관련된 집단의 동질성에 따라 ‘결속적 사회 자본’, ‘교량적 사회 자본’, ‘연결적 사회 자본’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 결속적 사회 자본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이미 동질적인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 속에서 형성되는 개념이고, 교량적 사회 자본은 이보다 조금 더 이질적인 동료나 조직 외 구성원들과 맺는 개념이다. 연결적 사회 자본은 이보다도 더 먼 집단과 집단, 혹은 공공 기관과 같은 조직과 맺는 개념이다. 독일 사회경제연구소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누리 소통망(SNS) 이용이 동질적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결속적 사회 자본은 강화하지만, 이질적인 집단 간에서 나타나는 교량적 사회 자본은 더 떨어뜨린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누리 소통망의 이용이 외부인과의 접촉 면은 더 늘렸지만, 누리 소통망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태도가 현실보다 더 공격적이어서 외부인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게 된 것으로 분석한다.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면서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물고 뜯는 논쟁들을 자주 접하며 외부인에 대한 신뢰도는 더 하락했다는 이야기이다.

사회 자본의 이런 상충적인 특성은 이미 많이 논의된 내용이기도 하다.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은 거꾸로 집단 외부인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결속적 사회 자본이 강화되는 것은 교량적 사회 자본이나 연결적 사회 자본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과연 이러한 결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것인가 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나’와 타자의 차이가 더 도드라지고, 내가 소속된 집단 외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가에 대한 철학적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적 차원으로 본다 해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나 노인들에게는 결속적 사회 자본이 중요하지만, 사회 활동을 하는 성인에게는 교량적 사회 자본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성인들의 누리 소통망 활동이 결국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이득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면서 기존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는 유대감이 강화되지만, 사회 전체적인 통합력이나 신뢰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내가 속한 집단에서 유대감이 깊어져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못 믿을 사람들이 더 많다고 느끼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가 누리 소통망에서 친구를 선별하게 되는 것도 혹시 이런 점 때문이 아니었을까?

[마] 자연\*은 우리 인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모두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로 태어나 이 땅 위에서 짧은 시간을 살다가 죽어 그 육체로 땅을 비옥하게 할 것이요. 당신들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서로를 도우시오. 당신들은 무지하므로 서로를 가르치고 용인하시오. 만약 당신들 모두가 같은 의견이고 단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이라면 당신들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당신들 각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이요.

나는 당신들 인간에게 땅을 경작할 팔을, 그리고 자신을 인도해 줄 한 줌의 이성을 주었소. 나는 당신들 각자의 가슴에 서로를 도와 삶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동정심의 싹을 심어 주었소. 이 싹을 꺾거나 씹히지 마시오. 이 동정심의 싹이야말로 신이 내려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오. 그리고 당신네의 가련할 수밖에 없는 당파적 논쟁의 격앙된 고통으로 자연의 목소리를 지우지 마시오.

당신네 인간들이 걸핏하면 벌이는 잔인한 전쟁, 과오와 우연과 불행이 펼쳐지는 영원한 무대인 그 전쟁 한복판에서도 오직 나 자연만이 당신들을, 당신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당신들 서로 간의 필요로 결합하게 할 수 있소. 오로지 나 자연만이 국가의 귀족층과 사법부 사이, 세속 권력 집단과 성직자 사이, 도시민과 농민 사이의 끊임없는 분열로 빚어지는 참담한 재앙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소.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권리를 끝없이 요구하고 있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마음 내키지는 않겠지만, 가슴에 호소하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요.”

\* 이 글에서 말하는 ‘자연’은 보편적인 이성을 뜻함.

**1** 제시문 [가] ~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경쟁’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다]의 ‘실용’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논지를 설명하시오. [20점]

**2** 제시문 [라]의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제시문 [마]에 근거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을 논하시오. [30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표 1]은 X재의 가격에 따른 E국 소비자들의 수요량과 소비자 잉여를 나타낸다. [표 1]에 따르면 X재 가격이 100원일 때 E국 소비자들은 80개를 구입하며 이때 32,000원의 소비자 잉여를 얻는다. X재는 E국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일 수도 있고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일 수도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 둘 간의 차이는 없다. 한편 [표 2]는 X재의 가격에 따른 국내 생산 X재와 수입 X재의 공급량과 국내 및 해외 기업들의 생산자 잉여를 나타낸다. [표 2]에 따르면 가격이 100원일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X재는 5개이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X재는 15개이므로 총 공급량은 20개이며, 국내 기업들이 개당 100원에 5개를 공급하여 얻는 생산자 잉여는 250원, 해외 기업들이 개당 100원에 15개를 공급하여 얻는 생산자 잉여는 750원이다. E국 정부는 자국 기업과 자국 소비자의 편익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해외 기업의 생산자 잉여는 E국의 총잉여(소비자 잉여+생산자 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1] E국의 수요량과 소비자 잉여

가격(원)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수요량(개)	80	70	60	50	40	30	20
소비자 잉여(원)	32,000	24,500	18,000	12,500	8,000	4,500	2,000

[표 2] 국내에서 생산되는 X재와 해외에서 수입되는 X재의 공급량 및 생산자 잉여

가격(원)	100	200	300	400	500	600	700
국내 기업들의 공급량(개)	5	10	15	20	25	30	35
해외에서 수입되는 공급량(개)	15	20	25	30	35	40	45
국내 기업들의 생산자 잉여(원)	250	1,000	2,250	4,000	6,250	9,000	12,250
해외 기업들의 생산자 잉여(원)	750	2,500	4,750	7,500	10,750	14,500	18,750

- (1)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 이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E국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고, 이 중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각각 구한 후, E국의 총잉여를 구하시오. [10점]
- (2) E국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할당제를 시행하여 X재의 수입량이 15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자. 이때 형성되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고, 이 중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각각 구하시오. 문항 (1)의 결과와 비교하여 E국의 소비자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보호 무역 조치로 인해 얻는 이득 혹은 손해가 얼마인지 각각 구하시오. [10점]
- (3) E국 정부가 수입 할당제를 시행하여 X재의 수입량이 4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자. 이때 형성되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문항 (1)에서 구한 값들과 비교하고, 주어진 수입 할당제가 균형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